

# 대순진리회 강성상제의 신격과 그 의미

- 강성(姜聖)의 의미를 중심으로 -

고 남 식

대진대학교 · 교수

- |                         |                     |
|-------------------------|---------------------|
| I. 서언                   | IV. 군사위 일체와 도통군자 실현 |
| II. 미륵불에서 강씨성으로 강세      | V. 혈통줄의 정립          |
| III. 강씨성의 개벽장(開闢長)으로 사명 | VI. 결어              |

## I. 서언

구천상제(九天上帝, 姜顛山, 1871-1909)의 강세(降世)는 신성·불·보살 등의 하소연으로 이루어졌다.<sup>1)</sup> 신성·불·보살 등이 하소연한 내용은 『전경』 교운(敎運) 1장 9절<sup>2)</sup>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 
- 1) 『전경(典經)』, 예시 1절, “상제께서 九천에 계시자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서양(西洋)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오셔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이하 『전경』의 인용은 장과 절만 표시함.
  - 2) 교운 1장 9절, “상제께서 어느 날 김 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 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결에 치우쳐

서양 물질문명이 신도(神道)의 권위를 추락시켜 천도(天道)와 인사(人事)의 상도(常道)가 어겨지고 삼계(三界)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어서이다. 여기서 천도와 인사의 상도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며 상제는 먼저 인간인 최수운(崔水雲, 崔濟愚, 1824-1864)에게 천명(天命)과 신교(神敎)를 내려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啓示)하였으나 대도(大道)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게 되어 직접 인간으로 강세(降世)하셨다. 상제께서 인간 세상에서 인존(人尊)시대<sup>3)</sup>의 시운(時運)을 따라 어겨진 천도와 인사의 상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강세하시어 행한 종교적 행적이 천지공사(天地公事, 1901-1909)이다. 상제의 인신강세(人身降世)는 구천상제(九天上帝)로 천신직(天神)의 위치에 계시던 상제께서 처음으로 강세해 구원을 행하고 가르침을 인간에게 베풀어 신앙적 경배(敬拜)를 받음으로써 신, 인간적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완성된 삼계(三界)를 구현하는 절대적 정점(頂點)에 이르게 됨을 보여준다.<sup>4)</sup>

『대순진리회요람(大巡眞理會要覽, 1969)』에는 대순진리회 신앙의 대상(對象)이신 구천상제의 신격위(神格位)의 의미를 구천, 응원, 너성, 보화, 천존, 강성상제의 여섯 부분으로 세분(細分)하여 상세히 밝히고 있다.<sup>5)</sup>

---

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최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다.”

- 3) 교법 2장 56절,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人尊)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
- 4) 고남식, 「대순사상에 나타난 동학의 위상과 증산의 참동학 전개」, 『대순사상논총』 16 (2003), p.9.
- 5) 구천(九天)이라함은 『전경』에 「…원시의 모든 신성(神聖)·불(佛)·보살(菩薩)들이 회집(會集)하여 구천(九天)에 하소연 하므로…」(교운 1장 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주(宇宙)를 총합(總轄)하시는 가장 높은 위(位)에 계시신 천존(天尊)께 하소연 하였

대순진리회의 신앙의 대상의 신격위에 대한 설명에서 강성(姜聖)에 상제가 더 추가된 강성상제(姜聖上帝)에 대해 ‘우주 삼라만상을 삼계 대권으로 주재 관령하시며 관감만천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존칭임을 뜻함이다’라고 적혀 있고, 신격위의 강성상제의 강성<sup>6)</sup> 부분은 강씨성(姜氏姓)으로 상제께서 강세(降世)하신 것과 상관성이 있다.<sup>7)</sup>

이 글은 신격위의 강성(姜聖)의 의미를 살펴본 것으로, 강성에서 강(姜)에 주목하며 상제께서 강씨성으로 강세하신 것에 의거하여 강성의 의미를 찾아본 것이다.<sup>8)</sup> 이와 관련해서 『전경』의 내용을 볼 때, 상제께서는 강씨성으로 강세하셨는데 이는 크게 미륵불과 원시반본 관련 자료에 나타난다. 먼저 미륵불과의 관련성은 상제께서 ‘육장금불이 화(化)하여 강(姜)<sup>9)</sup>이 되었다’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고,<sup>10)</sup> 개벽 및 원

다는 말이니 그 구천(九天)은 바로 상제(上帝)께서 삼계(三界)를 통찰(統察)하시건 곤(乾坤)을 조리(調理)하고 운화(運化)를 조련(調鍊)하시고 계시는 가장 높은 위(位)임을 뜻함이며, 응원(應元)이라 함은 모든 천체(天體)뿐만 아니라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다 천명(天命)에 응(應)하지 않고 생성(生成)됨이 없음을 뜻함이며, 뇌성(雷聲)이라 함은 천령(天令)이며 인성(仁聲)인 것이다. 뇌(雷)는 음양이기(陰陽二氣)의 결합(結合)으로써 성뢰(成雷)된다. 뇌(雷)는 성(聲)의 체(體)요, 성(聲)은 뇌(雷)의 용(用)으로써 천지(天地)를 나누고 동정진퇴(動靜進退)의 변화(變化)로 천기(天氣)와 지기(地氣)를 승강(昇降)케 하며 만물(萬物)을 성장(生長)하게 하고 생성변화(生成變化) 지배자양(支配滋養)함을 뜻함이며, 보화(普化)라 함은 우주(宇宙)의 만유(萬有)가 유형 무형(有形無形)으로 화성(化成)됨이 천존(天尊)의 덕화(德化)임을 뜻함이며, 천존(天尊)이라 함은 군생만물(群生萬物)을 뇌성(雷聲)으로 보화만방(普化萬方)하시는 지대지성(至大至聖)한 삼계(三界)의 지존(至尊)임을 뜻함이며, 강성상제(姜聖上帝)라 함은 우주(宇宙) 삼라만상(森羅萬象)을 삼계대권(三界大權)으로 주재(主宰) 관령(管領)하시며 관감만천(觀鑑萬天)하시는 전지전능(全知全能)한 하느님의 존칭(尊稱)임을 뜻함이다.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 요람』 (1969), pp.6-7.

- 6) 강성(姜聖)은 강(姜) 자(字)와 성(聖) 자(字)의 결합으로 성(聖) 자(字)는 인간 세상에 강(姜)씨 성(姓)으로 강세하신 상제의 성(姓)을 높여 존칭으로 한 것이다. 이는 도주(道主)에 대해 신격위를 조성육황상제(趙聖玉皇上帝)라고 하여 조(趙)씨 성(姓)으로 탄강하신 도주의 성(姓)을 높여 존칭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 7) 『전경』과 『대순진리회 요람』을 볼 때 현재 자료상으로는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의 신앙의 대상(對象)이신 상제의 신격위(神格位)는 1925년 무극도(無極道, 1925)에서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이었고(교운 2장 32절), 대순진리회에서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 요람』, 1969, p.6)로 기록되어 있다.
- 8) 후천선경(後天仙境) 지상천국(地上天國)을 이루는 모든 것이 상제께서 개벽장(開闢長)으로 행하신 천지공사(天地公事)로 이루어지는 일이나 이 글은 강씨(姜氏)로 강세하신 상제의 성(姓)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음을 밝혀둔다.
- 9) 예시 14절, “육장금불(六丈金佛)이 화위전녀(化爲全女)라” 전녀(全女)는 전(全)을 위로 여(女)를 아래로 하면 강(姜)이 된다.
- 10) 이외에 미륵불 관련 내용은 다음에서도 나타난다. 행록 2장 16절, “상제께서 어

시반본과의 상관성은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반본이 되므로 강성이 일을 맡게 되었느니라’<sup>11)</sup>고 하신 구절에 나타난다.

이중 원시반본 관련 구절은 자료상으로 강성(姜姓)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시 군사(君師)일체와 혈통줄이라는 내용으로 나누어진다.<sup>12)</sup> 이중 군사일체는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sup>13)</sup>는 말씀과 같이 성웅(聖雄)겸비 및 정교(政敎)일치와 관련이 있고, 혈통줄은 ‘원시반본하는 때라 혈통(血統)줄이 바로 잡혀 환부역조(換父易祖)와 환골(換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sup>14)</sup>’는 말씀과 같이 혈통줄이 바로 서는 면과 연관된다.

성(聖)과 웅(雄)이 바탕을 달리한 것은 신성(神聖)과 같은 존재의 재현(再現)에 의한 정교(政敎)일치로 해결되어야 하고, 혈통줄은 혈연 관계에 따른 조상과 자손간의 관계에 천륜(天倫)을 정립(正立)해야 하는 데, 이는 모두 원시반본에 따라 강성(姜姓)이라는 인간의 성(姓)으로 강세(降世)하신 상제께서 행하실 종교적 행적과 무관하지 않다. 상제께서 행하실 행적이 우주 삼라만상을 관감만천하시며 조화(造化)하시는 일이지만 원시반본에 주목할 때 관련 구절은 특별한 의미로 수

---

느남에 가라사대 「나는 곧 미륵이라. 금산사(金山寺) 미륵전(彌勒殿) 육장금신(六丈金神)은 여의주를 손에 받았노되 나는 입에 물었노라」고 하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중도들에게 아래 입술을 내어보이시니 거기에 붉은 점이 있고 상제의 용안은 금산사의 미륵금신과 흡사하시며 양미간에 둥근 백호주(白毫珠)가 있고 왼 손바닥에 임(壬)자와 오른 손바닥에 무(戊)자가 있음을 중도들이 보았도다.”; 예시 15절, “상제께서는 때로 금산사의 금불을 양산도(兩山道)라고 이름하시고 세속에 있는 말의 양산도와 비유하기도 하셨도다.”; 예시 86절, “상제께서 형렬(亨烈)의 집에 머무르고 계실 때 형렬이 집안이 가난하여 보리밥으로 상제를 공양하여 오던 차에 八月 추석 절을 맞게 되어 쇠술을 팔아서 공양코자 하는지라 상제께서 가라사대 「술이 들석이니 미륵불(彌勒佛)이 출세하리라」고 이르셨도다.”

11) 행록 4장 17절.

12) 후천선경을 여는 모든 일들이 상제께서 하신 성적(聖蹟)이지만, 강씨성이 원시반본과 관련된 면에 착안하여 이 글은 전경 자료에 등장하는 원시반본 관련 구절을 중심으로 강씨성의 의미를 고찰하였음을 밝혀둔다.

13) 교법 3장 26절.

14) 교법 3장 42절.

렴(收斂)되며 하나의 궤적을 그리면서 천지공사를 이루어 나가는 기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사를 보면 상제의 신격위에 대한 연구 및 강성(姜聖)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없고, 원시반본을 연구한 논문이 몇 편 있다. 그것을 보면, 증산사상은 원시반본으로 한국의 신도사상인 풍류화랑정신에 재귀함을 뜻한다고 한 것<sup>15)</sup>이 있고, 한민족의 원형의식을 회귀성(回歸性) 또는 귀소성(歸巢性)에 두고 증산의 원시반본사상과 접목시켜 한민족의 원형심성을 고찰한 연구<sup>16)</sup>도 있으며, 강증산의 원시반본 사상은 포괄적으로 해원, 상생, 보은 이라는 구체적 방법론과 연관해야 한다는 연구<sup>17)</sup> 등이 있다.<sup>18)</sup>

이에 이 글은 강성(姜聖)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상제의 성(姓)인 강성(姜姓)과 관련된 『전경』 자료를 중심으로 추출된 주요 내용에 근거하여, 2장에서 금산사(전북) 미륵불과 강성의 상관성을 살펴본 후 3장에서는 개벽시대의 개벽장과 연관해서 강성의 연관성을 찾아보았다. 이어 4장과 5장에서는 원시성(原始姓)인 강성과 연관된 원시반본 자료에 착안하여, 4장에서는 원시반본 관련 구절인 신성(神聖) 입극(立極)에 의한 군사(君師) 일체라는 면과 연관해서 강성(姜姓)으로서의 상제의 성적(聖蹟)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5장에서는 원시반본 관련 구절인 혈통줄의 정립(正立)과 연관하여 강성(姜姓)으로서의 상제의 성적(聖蹟)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강성(姜姓)으로 인간 세상에 강세(降世)하시어 후천개벽 시대에 원시반본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현재 대순진리회에서 구천응원 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라는 신격위에 강성(姜聖)이 내재되어 있는 의미의 일면(一面)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상제의 신격위에 대한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상제를 신앙의

15) 김형효, 「원시반본과 해원사상에 대한 철학적 고찰」, 『증산사상연구』 5 (1979)

16) 배영기, 「원형사관에서 본 원시반본사상」, 『고조선단군학』 4 (2001)

17) 김탁, 「강증산의 원시반본사상」, 『한국종교』 (서울: 도서출판 우석, 1993)

18) 원시반본에 대한 논문은 이 글의 본지(本旨)의 전개를 위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대상으로 수도함에 있어 강성(姜姓)으로 강세하신 의미를 통해 신격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수도생활을 정립해나가는 데 일조(一助)할 것이라 사료된다.

## II. 미륵불에서 강씨성<sup>19)</sup>으로 강세(降世)

강성(姜聖)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강씨성(姜氏姓)과 관련해서 2장과 3장에서 미륵불(彌勒佛)과 개벽장(開闢長), 4장과 5장에서는 강씨성과 연관하여 원시반본 관련 구절을 보기로 한다. 원시반본 관련 구절과 관련해서는 각각 군사위 일체, 혈통줄 정립이라는 두 가지 면을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강씨성과 관련된 하나의 구절은 상제께서 금산사 미륵불에서 화(化)하여<sup>20)</sup> 강씨성으로 강세<sup>21)</sup>하셨다고 하신 다음의 구절이다.

<1>

금산사에 상제를 따라갔을 때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천황(天皇) 지황(地皇) 인황(人皇) 후 천하지 대금산(天下之大金山)  
모악산하(母岳山下)에 **금불(金佛)이 능언(能言)**하고  
**육장 금불(六丈金佛)이 화위전녀(化爲全女)**라  
만국 황계 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청풍 명월 금산사(淸風明月金山寺)  
문명 개화 삼천국(文明開花三千國) 도술 운통 구만리(道術運通九萬里)

19) 강일순(姜一淳) 구천상제.

20) 본문 화위전녀(化位全女)의 화(化)와 관련해서는 『삼국유사』, 「고조선」에 ‘원화위인(願化爲人)’, ‘웅내가화이혼지(雄乃假化而婚之)’ 등의 화(化)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최남선 편, 『三國遺事』, 紀異 卷第一, 「古朝鮮」, (서문문화사, 1993), pp.33-34.

21) 상제의 탄강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행록 1장 1절, “진주 강씨(晋州姜氏)는 중국(中國) 수양제(隋煬帝) 때에 우리 나라에 건너 오니라. 시조(始祖) 이식으로부터 三十一대 자손 세의(世義)가 고부(古阜)로 낙향한 후 六대에 진창(晋昌)·우창(愚昌)·응창(應昌) 삼 형제도 이 곳에 살았도다.”; 행록 1장 5절, “객당리에 강씨 종가인 진창 어른부터 六대에 이르렀을 때 상제께서 탄강하셨으니, 상제의 성은 강(姜)씨이오. 존휘는 일순(一淳)이고 자함은 사옥(士玉)이시고 존호는 증산(龜山)이시니라.”

란 구절을 외워주셨도다.<sup>22)</sup>

위에서 선천(先天)시대 태고(太古)의 천황(天皇)<sup>23)</sup>과 지황(地皇)<sup>24)</sup> 그리고 인황(人皇)<sup>25)</sup> 이후에 하늘 아래 모악산(母岳山)의 큰 금산사(金山寺)에 봉안(奉安)된 미륵금불이 능히 말을 하고 육장(六丈) 길이의 금불이 화(化)하여 전녀(全女)가 되었다는 내용은 상제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심과 인간 세상의 여러 성씨 가운데 강씨성으로 탄강하심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금불이 능히 말을 하고, 미륵불이 화하여 강씨가 되었다는 내용은 강씨성으로 오신 상제께서 ‘미륵불’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상제께서 금산사 미륵불에 자신을 비유하시며 말씀하신 다음의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2>

상제께서 어느 날에 가라사대 「나는 곧 미륵이라. 금산사(金山寺) 미륵전(彌勒殿) 육장금신(六丈金神)은 여의주를 손에 받았으되 나는 입에 물었노라」고 하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아래 입술을 내어보이시니 거기에 붉은 점이 있고 상제의 용안은 금산사의 미륵금신과 흡사하시며 양미간에 둥근 백호주(白毫珠)가 있고 왼 손바닥에 임(壬)자와 오른 손바닥에 무(戊)자가 있음을 종도들이 보았도다.<sup>26)</sup>

위에서 상제께서는 여의주(如意珠)를 입에 물어 입술에 붉은 점이 있고 용안(龍顏)은 미륵금신(彌勒金身)과 유사하며 미륵불과 연관하여 ‘나는 곧 미륵이라’고 하신 바 있는데, 이는 상제께서 강씨성으로 행하시는 종교적 행적이 시속(時俗)의 미륵에 대한 신앙과 같은 맥락에 있음을 보여준다. 미륵불과 관련해서 상제께서는 그곳에 영(靈)으로 30

22) 예시 14절.

23) 『史略諺解』, “天皇氏 以木德王 歲起攝提 無爲而化 兄弟十二人 各一萬八千歲.” 『사략언해』, (서울: 명문당, 1999), p.1.

24) 같은 책, “地皇氏 以火德王 兄弟十一人 亦各一萬八千歲.”

25) 같은 책, “人皇氏 兄弟九人 分長九州 凡一百五十世 合四萬五千六百年.”

26) 행록 2장 16절.

년간 머물렀고 금산사 미륵금불에 임어(臨御)하시다가 인세에 강세하셨다. 이 미륵불에서 상제께서는 인간(최수운)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제세대도를 계시한 바도 있다. 아울러 여주(驪州) 본부도장(本部道場) 내(內) ‘취지(趣旨)’의 글에 상제에 대해 ‘구천상제(九天上帝)이시며 미륵존불(彌勒尊佛)’이라고 적혀있다.

또 육장금불이 강(姜)이 되었다<sup>27)</sup>라고 하시어, 인간 강씨로 상제께서 강세하셨지만 이는 미륵불의 의미가 인간으로 계신 상제에게 계속 이어져 상징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불교에서 당래불로 섬기는 미륵불은 용화불이라 부르기도 한다. 불설(佛說)에 미륵불은 천상에 올라가서 천인을 교화하여 3천년이 지나면 지상의 사바세계에 석가불의 교화가 퇴폐하여 인간들이 모두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그때에 미륵불이 다시 인간세계에 내려와서 용화회상(龍華會上)에 법륜(法輪)을 펴므로써 중생을 제도하여 지상천국, 용화세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미륵불이 강세(降世)한다는 주장은 한국적 종교사상 일반의 특색이니 한말에 신흥 종교를 일으킨 강증산(姜甌山)도 자신이 미륵불로 강림하였다고 설교하였다.<sup>28)</sup> 증산의 경우 스스로 상제가 강세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또 스스로 미륵불임을 자처했다. 이로 보면 증산사상은 도교적 상제와 불교의 미륵불의 하강사상이 통합된 형태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sup>29)</sup>

아울러 강씨로 강세하시어 상제께서는 남조선(南朝鮮)과 금산사 및 삼천국(三千國)에 대한 위상과 도술이 구만리에 통하게 된다는 예시적인 말씀<sup>30)</sup>을 하셨는데 이는 상제께서 강씨성으로 인세에 대강(大降)하시어 천지공사를 행하심으로써 이루어질 미래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27) 예시 14절, “육장금불(六丈金佛)이 화위전녀(化爲全女)라”

28) 이강오, 「사상으로서의 신흥종교 계보」, 『한국사상의 심층』 (서울: 도서출판 우석, 1994 3刷), p.446.

29) 김홍철, 「한국 신종교에 나타난 도교사상」, 『도교사상의 한국적 전개』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pp.321-323.

30) 예시 14절, “만국 황제 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청풍 명월 금산사(淸風明月金山寺) 문명 개화 삼천국(文明開花三千國) 도술 운통 구만리(道術運通九萬里)”

한편 다음의 구절에서 금산사 미륵금불을 양산도(兩山道)라 하셨는데 이는 종통(宗統)이 미륵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3>  
 상제께서는 때로 금산사의 금불을 양산도(兩山道)라고 이름하시고 세속에 있는 말의 양산도와 비유하기도 하셨도다.<sup>31)</sup>

위에서 양산도(兩山道)라는 것은 양산(兩山)의 도(道)라는 것으로 이 양산 즉 두 산은 증산(甞山, 九天上帝, 1871-1909)과 정산(鼎山, 道主, 1895-1958)<sup>32)</sup>을 가리킨다. 금산사 미륵금불에는 증산과 정산 두 분의 종통(宗統) 계승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증산으로부터 정산으로 종통이 전수(傳授)되며<sup>33)</sup> 미륵불의 이치가 양산도(兩山道)로 세상에 구현된다<sup>34)</sup>는 것이다.<sup>35)</sup>

31) 예시 15절.

32) 신격위와 관련해서 정산(鼎山)으로서 도주께서 증산(甞山) 구천상제에 대해 그 신격위의 뇌성보화천존 부분의 의미를 밝힌 내용이 있다. 이는 상제와 도주의 친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교운 2장 25절, “도주께서 해인사에서 돌아오신 다음 날에 여러 중도들을 모아놓고 「상제께서 해인을 인패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어떤 물체로 생각함은 그릇된 생각이니라. 해인은 먼데 있지 않고 자기 장중(掌中)에 있느니라. 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므로 해인이요, 해도 진인(海鳥眞人)이란 말이 있느니라. 바닷물을 보라. 전부 전기이니라. 물은 흘러 내려가나 오르는 성품을 갖고 있느니라. 삼라 만상의 근원이 수기를 흡수하여 성장하느니라. 하늘은 삼십 육천(三十六天)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뇌성 보화 천존 상제(雷聲普化天尊上帝)이시니라. 천상의 전기가 바닷물에 있었으니 바닷물의 전기로써 만물을 포장하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

33) 도주(道主)의 종통(宗統)은 유명(遺命)으로 도전(都典)에게 전수되었다. 『대순지침』과 『진경』에서 관련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순지침』, p.13-14, “구천상제님의 계시를 받으신 도주(道主)님께서 종통을 세우셨다. 나는 도주님의 유명(遺命)을 직접 받아 종통을 계승하였느니라.”; 교운 2장 66절, “도주께서 정유년十一月二十一日 자시부터 무술년 三월 三일까지 도장에서 불면 불휴하고 백일도수를 마치시니라. 五일에 심히 괴로와 하시므로 한의사와 양의사를 불러왔오되 「때가 늦었도다」고 이르시니라. 도주께서 이튿날 미시에 간부 전원을 문 밖에서 시럽게 한후 도전 박 한경을 가까이 하고 도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도의 운영 전만을 말도록 분부를 내리고 「오십년 공부 종필(五十年工夫終畢)이며 지기 금지 사월래(至氣今至四月來)가 금년이다. 나는 간다.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행하여 오던 대로 잘 행해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문밖을 향하여 「도적놈」을 세번 부르시더니 화천하시니라. 무술년 三월 六일 미시요, 양력으로 一九五八年 四月 二十四일이요, 수는 六十四세로다.”

34) 다음의 구절도 미륵불로서 상제의 천지대도(天地大道)가 정산(鼎山)과 연관되어 세상에 출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예시 86절, “상제께서 형렬(亨烈)의 집에 머무르고 계실 때 형렬이 집안이 가난하여 보리밥으로 상제를 공양하여 오던 차에 8월

강증산(姜甌山, 1871-1909)의 ‘천지공사(天地公事, 1901-1909)’와 조정산(趙鼎山, 1895-1958)의 ‘무극도(無極道, 1925)’의 창도와 ‘포교 오십년공부(布教五十年工夫, 1909-1958)’를 통해서 도통군자(道通君子)가 나올 수 있는 기틀이 세워지고 세상 구원의 이치도 증산(甌山)과 정산(鼎山)의 종통 계승 속에서 구현됨을 보여준다.<sup>36)</sup> 정산(鼎山)의 사상이 증산(甌山)에 연원(淵源)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무극도의 출현은 증산의 화천(化天) 후 증산의 포교(布教)공사인 오십년 포교공부 하에 교리화를 거쳐 대중들에게 다가감으로써 초기의 원시종교집단 형태에서 새로운 체제를 거쳐 증산의 종교적 체제를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되는 종교현상이었다.<sup>37)</sup>

이는 금산사 미륵불이 상제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영(靈)으로 머문 곳이지만 원시반본에 따라 인간 강씨로 강세한 상제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종통 계승 하에 도통줄<sup>38)</sup>이 연계됨을 말해준다. 그것은 종통 계승에 의해 도통줄이 전해져 도통의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 있게 되는데 이 일이 미륵불에 담긴 양산의 이치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전(都典, 朴牛堂, 1917-1995<sup>39)</sup>)께서도 금산사 미륵금불

---

추석절을 맞게 되어 쇠술을 팔아서 공양코자 하는지라 상제께서 가라사대 「술이 들 석이니 미륵불(彌勒佛)이 출세하리라」고 이르셨도다.” 술이 들 석임은 정산의 호의 정(鼎)의 뜻이 술이라는 것과 상관된다.

35) “龜馬一道金山下”(하도 낙서의 원리가 하나의 도로 금산사 아래에 있다.)라는 공사 3장 39절의 구절도 복희의 역(易)과 문왕의 역의 원리가 모두 금산사에 있는 미륵금불의 이치 속에서 쓰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36) 성사(聖師)께서 신통자재(神通自在)로 구애(拘碍)됨이 없이四十년간 유일무이(有一無二)한 진리(眞理)를 인세(人世)에 선포(宣布)하시고 해탈초신(解脫超身)으로 상계(上界)의 보화천존(普化天尊) 제위(帝位)에 임어(臨御)하시니 삼계(三界)를 통찰(通察)하시고 무한무량(無限無量)한 세계(世界)를 관령(管領)하시니 지존(至尊) 지엄(至嚴)하신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이시다. 대순(大巡)하신 유지(遺志)를 계승(繼承)하여 五十年 공부 종필(工夫終畢)으로써 전(傳)하신 조정산 도주(趙鼎山道主)의 유법(遺法)을 승신(崇信)하여 귀의(歸依)할 바를 삼고자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를 창설(創設)한 것이다. 『대순진리회요람』, pp.8-9.

37) 고남식, 「증산의 도가적 경향과 무극도의 도교적 요소」, 『대순사상논총』 17 (2004), p.14.

38) 교운 1장 41절.

39) 음력 1995년 12월 4일, 양력은 1996년 1월 23일.

에 대해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라”고 하심은 미륵불과 솔의 양산(兩山)의 진리를 밝혀 주신 것이다.<sup>40)</sup> 금산사도 진표율사가 용추(용소)를 솥으로 메우고 솔을 올려놓은 위에 미륵불을 봉안한 것은 증산(甌山) 정산(鼎山)의 양산의 진리를 암시하여 도의 근원을 밝혀 놓은 것이다<sup>41)</sup> 라고 하여 양산(兩山)의 이치가 미륵불에 내재되어 있음을 밝히셨다. 즉 미륵금불이 양산도(兩山道)라는 것은 종통을 암시한 것으로 상제의 호인 증산(甌山)과 도주의 호인 정산(鼎山)의 양산의 도(道)를 말한다. 미륵금불에는 종통 계승에 대한 천부적(天賦的)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는 도통줄이 양산의 이치를 따라 증산에서 정산으로 계승되며<sup>42)</sup> 도통군자가 출현함을 보여준다. 이상을 보면, 강씨성으로 상제께서 강세하시어 미륵불로서 양산의 도를 따라 세상구원의 성적(聖蹟)을 행하시는 것으로 요약된다.

### Ⅲ. 강씨성의 개벽장(開闢長)으로 사명(司命)

앞에서 살펴 본 미륵불 관련 내용에 이어 이장에서는 강씨성(姜氏姓)이 원시성으로 개벽장(開闢長)과 관련된 내용을 보기로 한다.

<4>

강씨(姜氏)는 상고 신농씨(神農氏)로부터 시작되고 성(姓)으로서는 원시성이로다.<sup>43)</sup>

<5>

무신년 四월 어느 날 또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 세상에 성

40)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p.14.

41) 같은 책, p.15.

42) 이 종통(宗統)은 다시 도전(都典)에게 유명(遺命)으로 전해졌다(1958).

43) 행록 1장 1절.

으로는 풍(風)성이 먼저 있었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풍채(風采) 풍신(風身) 풍골(風骨)등으로 몸의 생김새의 칭호만으로 남아올 뿐이오. 그 다음은 강(姜)성이 나왔으니 곧 성의 원시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반본이 되므로 강(姜)성이 일을 맡게** 되었나니라.」 하셨도다<sup>44)</sup>

위에서 강성(姜姓)이 일을 맡게 된 것에 대해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반본이 되므로’<sup>45)</sup> 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개벽의 시대를 맞아 원시반본의 원리가 있게 되어 개벽에 대해 강성이 주도하여 일을 하게 되며, 선천 개벽을 지나 후천 개벽의 시대에 강성(姜姓)으로서 상제께서 개벽장의 역할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강세 후 삼계 개벽공사에 대해 밝히신 다음의 구절에서 볼 수 있다.

<6>

“시속에 말하는 개벽장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벽장(開闢長)을 말함이니라. 상제께서 대원사에서의 공부를 마치신 신축(辛丑)년 겨울에 창문에 종이를 바르지 않고 부엌에 불을 지피지 않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음식을 전폐하고 아흐렛 동안 천지공사를 시작하셨도다.”<sup>46)</sup>

<7>

“상제께서 이듬해 사월에 김 형렬의 집에서 삼계를 개벽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sup>47)</sup>

---

44) 행록 4장 17절.

45) 행록 4장 17절.

46) 공사 1장 1절.

47) 공사 1장 2절.

위 <6>에서 개벽장은 신명만이 아니라 창생 또한 구하는 이로 우주적 차원의 권능으로 천도와 인사의 일을 바로 잡아 신성·불·보살 등이 하소연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개벽의 정의와 개벽을 주도하는 존재인 개벽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관련 내용이 있다.

<8>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을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sup>48)</sup>

위에서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는 것은 후천 개벽으로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후천 개벽을 주도할 존재가 서신(西神)으로 나타난다. 위에서 이 서신이 불의(不義)의 숙청(肅淸)과 인애(仁愛)로 의인(義人)을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인데 이 서신에 대한 다음의 기록은 강성으로서 개벽을 주재(主宰)하는 일이 강씨성인 상제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9>

경석으로 하여금 양지에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 강 일순 호남 서신 사명(全羅道古阜郡優德面客望里 姜一淳湖南西神司命)이라 쓰게 하고 그것을 불사르게 하시니라. 이 때에 신 원일이 상제께 천하를 속히 평정하시기 바라나이라고 아뢰니 상제께서 내가 천하사를 도모하고자 지금 떠나려하노라 하셨도다. <sup>49)</sup>

48) 예시 30절.

49) 행록 5장 34절.

위에서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는 상제께서 강제하신 곳이며 강성(姜姓)으로서 존휘가 일순(一淳)이신 상제께서 호남(湖南)에서 서신(西神)으로 사명(司命)하게 된다는 것은 위의 개벽을 정의한 구절 <8>에서 ‘서신(西神)이 사명(司命)하여’라고 한 부분과 같은 내용인데 이는 위 <9>에서 강일순과 서신사명이 결합되며 강성으로서 상제께서 개벽의 일을 주재(主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상제께서는 원시성인 강성으로 개벽시대에 개벽을 주재하여 명(命)을 부리는 일을 맡은 개벽장(開闢長)으로서 후천 선경을 이루시는 것<sup>50)</sup>으로 요약된다.<sup>51)</sup>

#### IV. 군사위(君師位) 일체와 도통군자 실현

이상에서 강성의 미륵불 및 개벽장과의 상관성을 보았다. 다음으로 강성이 원시반본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기인(基因)하여 원시반본 관련 구절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상제께서 원시반본을 말씀하신 『전경(典經)』의 구체적인 구절들은 원시반본에 의해 강씨성으로 행하신 상제의 일과 긴밀히 연관됨을 유추해 볼 수 있다.<sup>52)</sup> 상제의 사상체계에는

50) 공사 1장 3절,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

51) 강씨성과 관련해서는 미륵불, 개벽장 외에 다음과 같이 상징적으로 강성을 표현한 내용이 있다. 예시 49절, “김 경학이 김 자선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냈을 때 상제께서 「어제 밤에 꿈 이야기를 하라」고 경학에게 이르시니 그는 「개 한 마리가 우물에 빠진 것을 보고 구하려 달려갔더니 그 개가 우물에서 뛰어나와 다른 곳으로 가 버렸나이다」고 꿈 이야기를 여쭙니 상제께서 「속담에 강성(姜姓)을 강아지라 하니라. 네가 꿈을 옳게 꾸었도다」고 말씀하셨도다.”

52) 이하의 4장과 5장의 논의(論議)는 강씨성이 원시반본(原始返本)에 의해 상제의 인간 세상에서의 성(姓)으로 되었다는 사실에 토대하여, 논의의 폭을 전경에 등장하는 원시반본 관련 두 개의 구절에 한정하여 강성(姜聖)의 의미를 고찰하였음을 밝혀둔

원시반본의 원리 아래 무위이화(無爲而化), 신도(神道)사상, 복희의 역(易)사상 등이 수용되고 있는데 때론 수용된 사상들이 통합, 창출되는 과정을 거쳐 천지공사를 행한 상제의 권능(權能) 안에서 구사(驅使)되고 있는 것이다.<sup>53)</sup>

신성·불·보살 등이 하소연한 문제에 대해, 상제께서는 강씨성으로 원시반본과 관련하여 군사(君師)의 위치가 일체되는 진법(眞法)을 통해서 세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다. 원시반본의 원리에 따라 강씨로 강제한 상제께서 밝히신 다음의 성웅(聖雄)의 겸비,<sup>54)</sup> 정교(政敎)의 일치를 다시 구현해나가는 존재의 재탄생이라는 또 하나의 원시반본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진법(眞法)하의 질서로 구원의 길을 찾게 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인세(人世)에서 강씨성으로 상제께서 하실 종교적 행적의 중요한 일단(一端)이 된다. 다음은 강씨로 강제하신 상제와 상관해서 진법(眞法)에 대한 『전경』 자료이다.

<10>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이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統制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sup>55)</sup>

신성·불·보살 등이 구천의 상제께 스스로 혼란한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선천(先天) 말대(末代)의 상황 하에서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제가 아니시면 안 된다는 절대절명(絕對絶命)의 선언을 한 것이 된다. 신성(神聖)이 지금까지 신계(神界)에서의 활동과 함께, 인계(人界)에서 정치와 교화를 통해 세상을 이끌어 온 존재라는

다. 그 두 개의 구절은 교법 3장 26절과 42절이다.

53) 고남식, 앞의 글, p.11.

54) 교법 1장 23절, “마음은 성인의 바탕으로 닦고 일은 영웅의 도락을 취하여야 되느니라.”

55) 교법 3장 26절.

면에서 어떠한 연유로 인하는 천지의 혼란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하고 상제께 구원을 하소연한 것은 이제 미륵존불이시며, 개벽(開闢)시대 개벽장(開闢長)으로서 상제에 의해 새로운 능력이 부여된 존재가 출현하여 진법을 구현해 나갈 시운(時運)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마두(利瑪竇, Ricci, 1552-1610)의 동양 천주교 전파 후의 신화적(神話的) 사후담(死後談)<sup>56)</sup>은 이마두가 죽은 후 신계(神界)에서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건너가 문운(文運)을 열었는데 천국(天國) 문명이 지상에 전해진 것은 지하신이 천상에 올라가 천국의 문명을 베푸는 것으로부터 유래했다고 나타난다. 서양 물질문명이 창생의 편의를 위해 존속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당위적으로 기존의 폐단을 극복한 터전위에서 문명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럴 때 궁극적으로는 선경(仙境)건설과 관련해서 후천(後天)의 문명은 새로이 구축된 신도(神道)의 주재자(主宰者)이며, 개벽장(開闢長)으로 신앙대상인 구천상제가 천국의 문명을 적극적으로 구현해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sup>57)</sup>

또 진법<sup>58)</sup>을 따라 실로 정교(政敎)일치를 구축해 나갈 존재는 상제께서 천명하신 도통군자(道通君子)<sup>59)</sup>라는 전대 미증유적 존재의 출현과 그들의 역할에서 구원의 발전적 지향과 구현을 찾게 되는데 이는 도통군자들로 하여금 상제의 도(道)를 창성시켜나가게 된다는 다음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 <11>

상제께서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젖(乳) 샘이라」고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일 만 이천 봉을 응기하

56) 교운 1장 9절.

57) 교남식, 앞의 글, pp.28-29.

58) 교법 3장 37절, “이 세상에 전하여 오는 모든 허례는 목은 하늘이 그릇되게 꾸민 것이니 앞으로는 진법이 나오리라.” 중고 이후 정치와 교화의 분리는 목은 하늘의 지배아래 예(禮)에 있어 허례(虛禮)를 양산했음을 또한 볼 수 있다.

59) 예시 15절, “상제께서는 때로 금산사의 금불을 양산도(兩山道)라고 이름하시고 세속에 있는 말의 양산도와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여 일반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 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하시고 「상유도창 중유태인 하유대각 (上有道昌 中有泰仁 下有大覺)」이라고 말씀하셨도다.<sup>60)</sup>

상제의 강씨성(姜氏姓)으로의 강세는 신성·불·보살 등의 하소연으로 이루어졌는데 세상의 이치가 잘 순환되어 질서가 정립되었다면, 하소연에 따라 상제께서 공사를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sup>61)</sup> 신성·불·보살의 하소연은 자신들이 우주적 혼란을 어찌 할 수 없어 진멸(盡滅)의 상황에 처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상제의 무한무량(無限無量)한 권능(權能) 아래 공사가 처결되어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야만 된다는 선언이며 상제의 천지대도(天地大道)를 닦아 출현할 인간완성자인 도통군자들이 해나가야 할 일련의 몫임을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면은 원시반본의 시대적 운세(運勢)에서 진법(眞法)을 세울 존재로서의 도통군자의 역할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 도통군자들은 신성·불·보살 등이 하소연한 천도와 인사의 상도를 회복하는 면과 연관되며 상제께서 인존시대를 맞아 강성(姜姓)으로 인세(人世)에 강세(降世)한 일과도 관계된다. 상제의 강세로 인존시대 성사재인(成事在人)론<sup>62)</sup>에 따라 인간 세상에서 상제의 일을 수행할 존재가 필요한데 그 일을 할 존재는 도통을 이룬 도통군자(道通君子)가 된다.

아울러 도통군자의 능력은 ‘상등(上等)은 만사(萬事)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中等)은 용사(用事)에 제한이 있고 하등(下等)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sup>63)</sup>으로 나

60) 예시 45절.

61) 공사 1장 9절, “상제께서 어느날 종도들에게 「내가 이 공사를 맡고자 함이 아니라. 천지신명이 모여 상제가 아니면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다 하므로 괴롭기 한량 없으나 어찌할 수 없이 맡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셨도다.”

62) 교법 3장 35절,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라. 또 너희가 아무리 죽고 자 하여도 죽지 못할 것이요. 내가 놓아주어야 죽느니라.”

타난다. 만사(萬事)를 임의로 행하고, 용사에 제한이 있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는 도통의 차이는 있지만 문명이 개화된 삼천(三千)나라<sup>64</sup>)에서 도통군자들이 입극(立極)하여 정치와 교화를 함께 관장하는 세상은 군사(君師)의 위상(位相)이 하나가 되는 진법(眞法)의 차원이 된다는 것이다. 또 상제의 도통군자 산출(産出)은 미륵불의 양산(兩山)의 이치로 종통의 계승아래 이루어져 가는데 이는 도통줄의 전수가 먼저 전제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2>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 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sup>65)</sup>

위에서 도통줄이 대두목에게 전해지고 유불선의 도통신들도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두목은 수교자(受敎者)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 공사이다.<sup>66)</sup> 이 대두목과 도통줄은 앞 장 예문 <3>에서 보듯 증산과 정산의 양산의 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앞장의 내용과 함께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미륵불의 양산(兩山)의 이치 아래 도통줄의 전수(傳授)가 있고 이후 도통군자가 출현하여 도를 창성시켜 나가는데 이는 정교(政敎)일치, 성웅(聖雄)겸비, 진법

63) 교운 1장 34절.

64) 예시 14절, “文明開化三千國”

65) 교운 1장 41절.

66) 교운 1장 38절, “상제께서 동곡에 머물고 계실 때 교운을 퍼시니라. 종도 아홉 사람을 벌려 앉히고 감찰에게 푸른 대(竹)나무를 마음대로 잘라 오게 명하셨도다. 감찰이 잘라 온 대가 모두 열 마디인지라. 그중 한 마디를 끊고 가라사대 「이 한 마디는 두목이니 두목은 마음먹은 대로 왕래하고 유력할 것이며 남은 아홉 마디는 수교자의 수이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하늘에 별이 떴이나 나타났는가」 보라 하셨도다. 감찰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나 복판이 열려서 그 사이에 별 아홉이 반짝입니다」고 아뢰니라. 상제께서 「그것은 수교자의 수에 응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도다.”

(眞法)출현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전경의 자료를 볼 때, 원시반본에 의거 강씨성으로 강세하신 상제의 권능을 따라 이룩되는 것이다.

## V. 혈통(血統)줄의 정립(正立)

4장에 이어 5장에서도 강씨성과 연관이 있는 원시반본 관련 구절을 중심으로 강씨성(姜氏姓)의 인간성(人間姓)으로 강세하신 상제의 주요(主要) 행적과 관련된 내용을 보기로 한다. 먼저 원시반본 관련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13>

원시반본하는 때라 **혈통줄이 바로잡혀** 환부역조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sup>67)</sup>

위에서 혈통(血統)줄이 바로 잡히는 시기가 원시반본하는 때이고 이에 따라 환부역조(換父易祖)와 환골(換骨)하는 이는 다 죽게 됨을 알 수 있다. 혈통줄이 바로 잡힌다는 것은 조상(祖上)과 자손(子孫)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이고 이는 원시반본에 따라 강성(姜姓)으로 강세하신 상제의 하실 행적과 일련의 상관성을 갖는 내용이 된다. 아울러 상제는 원시반본하는 때라서 강씨 성으로 탄강하셨으며 인간 세상에 원시성이었던 풍성(風姓)이 15대에 대가 끊겨서<sup>68)</sup> 다음으로 강씨가 원시성이 되어 강씨로서 일을 맡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원시반본 구절과 관련해 보면 혈통줄을 바로 잡는 것과 상관된다.

위 <13>에서 보듯이 상제께서는 환부역조와 환골하는 사람은

67) 교법 3장 42절.

68) 『十八史略』, p.3, “風姓이 相承十五世라.”

모두 죽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각 사람의 근원적 실체가 조상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음이다. 이에 혈통줄의 정립(正立)이라는 면을 상제께서 새로이 밝히신 조상과 자손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이는 원시반본을 따라 인간 강씨성(姜氏姓)으로 강세하신 상제께서 행하실 주요 성적(聖蹟)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강성(姜姓)에 담긴 의미를 찾는 일이 된다. 혈통줄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조상과 자손의 일반적 관계, 조상과 자손의 도통에서의 관계, 명부 관련 조상과 자손의 관계라는 세 가지 면에서 조상과 자손간의 긴밀한 관계를 보기로 한다. 먼저 조상과 자손의 일반적 긴밀성을 보기로 한다.

<14>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 내되 그렇게 공을 드려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들여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 하셨도다.<sup>69)</sup>

위에서 사람은 하늘의 공력(功力)으로 태어났는데 자손을 얻기 위한 조상격인 선령신(先靈神)의 공력이 없으면 자손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력을 들여도 자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조상의 자손을 얻기 위한 노력이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공을 들이는 전체 조건하에 있다는 것으로 자손은 조상에게 있어서는 헤아릴 수 없는 노력으로 존재하는 소중한 것이 있고, 이에 대해 자손은 자신의 내력(來歷)을 알고 조상의 은혜(恩惠)에 대한 보답의 길을 가야한다는 상생적(相生的) 관계가 있음을 천륜의 질서 하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지상명령이 담겨 있다. 그래서 상제께서는 인간 세상에 강세하시어 ‘이

69) 교법 2장 36절.

같이 공을 들여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라고 하신 것이다.

<15>

김 송환이 사후 일을 여쭙어 물으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사람에게 혼과 백이 있나니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사대(四代)를 넘긴 후로 영도 되고 선도 되니라.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니라」 하셨도다.<sup>70)</sup>

위에서 사람은 죽은 뒤에 혼(魂)과 백(魄)으로 나누어지고 혼이 하늘에 올라 신(神)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는다는 것은 조상과 자손의 관계가 혈연의 혈통줄에 따라 긴밀한 관계임을 보여준다. 더욱이 자손의 제사를 받다가 사대(四代)를 지나야 새로운 차원에 들어 영이나 선이 된다는 것은 자손이 조상에게 들이는 정성의 기간이 사대라는 정해진 신계(神界)에서의 규율(規律) 하에 새 차원으로 넘어가는 원칙적인 관계를 밝히고 있다. 또 수많은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만일 다툼이 있게 되면 이는 긴밀한 관계인 천상 신계 선령신의 싸움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고 조상의 60년의 공력으로 태어난 자손들의 다툼은 선령신의 싸움을 야기시키며 이 선령신들 간의 싸움의 결과가 또한 자손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는 면도 다음의 구절에서 볼 수 있다.

<16>

사람들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sup>71)</sup>

아울러 선령신들은 자손들이 남과 다투는 면에도 작용하지만 이 같

---

70) 교법 1장 50절.

71) 교법 1장 54절.

은 인간적 차원의 긴밀한 보살핌만이 아니라 신적 영역에서도 척신이라는 존재의 좋지 못한 작용을 물리치기 위해 양으로 음으로 개입하며 더 승화된 차원인 수도의 길로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역할도 선령신들이 하고 있음을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다.

<17>

이제 각 선령신들이 해원 시대를 맞이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빼내어 덜미를 쳐 내세우나니 힘써 닦을지이다.<sup>72)</sup>

특히 도통과 관련해서 조상과 자손의 관계를 보기로 한다. 다음의 구절은 각 인간의 성씨(姓氏)의 선령신들이 도통(道通)과 관련됨을 보여준다.

<18>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 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성(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sup>73)</sup>

종도 박공우가 도통을 원하자 상제께서는 도통은 사정(私情)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천상(天上)에서 공정(公庭)에 참여하고 있는 인간 각 성(姓)의 선령신들이 인간세상의 자손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하셨다. 이는 지상의 인간과 조상 선령신이 연관되어 도통이 있게 됨을 보여준다. 이에 상제는 다음과 같이 도통줄 공사를 통해 과거 조상의 공덕이 도통에 영향을 줌을 밝히셨다.

---

72) 교법 2장 14절.

73) 교운 1장 33절.

## &lt;19&gt;

상제께서 본택에 간수했던 선대의 교지를 찾아 옥새가 찍힌 부분을 도려내고 불사르신 다음에 그 부분과 엽전을 비단에 싸서 한쪽에 끈을 달아 손에 들고 목에 붉은 베를 매고 딸각딸각 소리를 내시며 시루산을 오르내리면서 큰 목성으로 도통줄이 나온다고 외치시니 이 뜻을 모르고 사람들은 없어진 교지만을 애석하게 여겼도다.<sup>74)</sup>

위에서 상제께서 본택 강씨 선대 조상의 벼슬이 적혀져 있는 교지(教旨)의 글을 불사른 것은 그것을 소지(燒紙)에 의해 신명계에 알림이고 다시 엽전을 비단에 싸서 쓴 것은 복록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는 선대 조상과의 상관성 속에서 도통줄을 맞춰 도통이 나옴을 말해준다.<sup>75)</sup> 즉 도통이 조상의 공덕과 연관되는데 이는 이제 인존(人尊) 시대를 맞아 인간의 도통이 신계(神界) 조상의 과거 공덕과 일련의 유기적 관계성을 갖고 있음이다.<sup>76)</sup>

앞 장의 논의와 함께 이상의 내용은 강씨성으로서 상제께서 신도(神道)와 인사(人事)의 상도(常道)를 조상과 자손 관계에서 바로 잡아 결국 상제를 정점(頂點)으로 후천(後天)을 이루는 신도를 근간해서 인존시대의 기틀을 세우고 도통군자가 나와 새로운 완성을 만들게 됨<sup>77)</sup>을 알 수 있다. 증산의 실천윤리는 ‘중통인리’를 바탕으로 한 ‘인존사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증산의 인존사상은 중적 지배질서를 주장하는 성리학적 체제를 부정하고 만민이 평등하다는 평등관인 인간 존중 사상이다. 증산의 인존사상은 동아시아 전통의 봉건적 지배질서를 전적

74) 예시 18절.

75) 다음의 구절은 조상과 자손 관계에서, 관직(官職)과 공명(功名)이 선령(先靈)과 자손(子孫)의 호칭(呼稱)과도 상관됨을 보여준다. 행록 3장 27절, “높은 벼슬인 현관(顯官)이 없고 공명을 세우지 못하면 선령은 살아서 유학(儒學), 죽어서는 학생(學生)이 되고, 자손은 집안에서는 서방(書房) 밖에서는 석사(碩士)로 된다는 것이다. 四五世無顯官先靈生儒學死學生 二三十不功名子孫入書房出碩士”

76) 상제께서 목에 매신 붉은 줄에서 붉은 색은 상제로부터 시작되는 혈통성(血統性)이며 딸각딸각 소리를 내심은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소리로 상징되고, 아울러 시루산(巖山)을 오르내리심은 산으로서의 시루산이 지기(地氣)와 관련해서 그 중심이 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공사가 도통의 줄을 만드는 상징성을 보여준다.

77) 고남식, 앞의 글, pp.22-23.

으로 부정하여 남녀평등에서 신분의 평등, 경제의 평등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전면적 변화를 주장하였다. 증산은 그의 인존사상을 중통인의를 이룬 존재들에 의해 영위되는 조화로운 세상으로 표현하였다. 증산이 주장한 중통인의는 기존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존재의 상위적 평등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천윤리에 그대로 적용하여 이상사회인 ‘용화선경’을 형성하고자 했다.<sup>78)</sup>

마지막으로 명부(冥府)와 관련해서 조상과 자손의 관계를 보기로 한다. 명부는 인간이 죽어 간다는 곳인데, 사람의 생사(生死)를 관장하는 명부는 신계와 인계에 연계된 기관으로 명부가 조상인 신(神)과 관련된 천도(天道)와 자손과 연관된 인도(人道)의 두 가지 문제에 총체적으로 관련된다는 면에서 명부 공사는 혈통줄을 바로 잡는 것과 일련의 관계를 맺고 있다. 신명계와 인간계는 서로 상추상응(相推相應)의 관계인데 강일순(姜一淳)은 천지공사를 행할 때마다 모든 신명들을 불러 모아 이 조화(造化)정부를 결성하여 우주의 원동기관으로서 통일 신단의 결성을 통해 모든 신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신의 권능으로 신명들을 불러 모아 이 조화정부에서 이들과 천지공사를 하였다.<sup>79)</sup> 명부공사는 다음과 같다.

<20>

상제께서 가라사대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 일이 해결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뒤부터 상제께서 날마다 종이에 글을 쓰시고는 그것을 불사르셨도다. <sup>80)</sup>

<21>

상제께서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도수를 뜯어고치셨도다. 이로써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으니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sup>81)</sup>

78) 장재진, 『근대 동아시아의 종교다원주의와 유토피아』 (부산: 산지니, 2011), p.271.

79) 노길명, 「신과 인간의 원한을 말소한다」, 『한국사상의 심층』 (서울: 도서출판 우석, 1994), pp.429-433.

80) 공사 1장 5절.

명부(冥府)의 착란(錯亂)이 삼계의 착란과 온 세상의 문제를 일으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신계(神界)의 한 부서(府署)라 하는 명부의 어지러움이 타계(他界)에 까지 영향을 주며 모든 세상의 문제를 야기 시킨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명부에서의 상극도수를 뜯어 고치셨도다. 이로써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으니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고 한 부분에서 보듯이 명부를 바로 잡는 일은 신명과 창생을 모두 함께 살리는 것으로 신계와 인계를 아우르는 중요한 공사가 되어 상제께서 명부공사에 먼저 착수하신 것이며<sup>82)</sup>, 위에서 신명과 창생의 관계는 일면 조상 선령신과 자손간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신계와 인계, 즉 조상 선령신과 자손이 유기적으로 긴밀한 관계 하에 존재함을 볼 수 있다.

명부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계 기관이라는 면에서 명부의 착란을 바로 잡는 것이 조상과 조상의 공력으로 태어나는 자손간의 혈통줄을 바로 잡는 일에도 영향을 주는 원본적 기틀이 됨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혈통적 관계 하에 있는 도통군자의 출현에도 영향을 주게 됨을 엿볼 수 있다.

또 명부 착란의 해결은 앞에서 ‘신성·불·보살들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으며, 신도(神道)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天道)와 인사(人事)의 상도(常道)가 어겨지고 삼계(三界)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어서’ 라는 부분에 나타나듯 신성·불·보살 등이 직시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면에 있어 천지와 인이 함께 긴밀히 연관되어 상응(相應)한다는 점에서 해결의 고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제께서는 명부, 종교 종장(宗長) 등 각종의

81) 예시 10절.

82) 명부공사와 관련해서는 조선 청국 일본의 명부의 수장을 정하는 공사와 아표신이 천상으로 가는 내용도 있다. 공사 1장 7절, “상제께서 김형렬의 집에서 그의 시중을 받아 명부공사를 행하시니라. 상제께서 형렬에게 「조선명부(朝鮮冥府)를 전 명숙(全明淑)으로, 청국명부(淸國冥府)를 김 일부(金一夫)로, 일본명부(日本冥府)를 최 수운(崔水雲)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고 말씀하시고”; 예시 11절, “이 공사를 행하므로써 일체의 아표신이 천상으로 올라가니 땅에 굶주림이 사라지고 그 신들의 재해가 없어지도다.”

신명을 새로운 존재들로 바꾸었으며 기존 세상을 목은 하늘에 의해 운행되어온 것으로 지적하고 모든 이치를 모아 이루는 개혁을 통해 도수를 다시 바로 잡아 새로운 후천의 시운을 만들어 자신이 천지공사로 조정한 신도에 의해 우주가 운행되는 원리를 언급했다.<sup>83)</sup>

이처럼 긴밀한 조상과 선령신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 상제께서는 강씨성으로 강세하시어 명부공사를 처결하셨으며 이는 원시반본이라는 원리 하에서 해석할 때 혈통줄의 정립과도 거시적으로 관계된다.

이상 앞장에서의 논의를 종합해서 보면, 『전경』 자료에 근거할 때 상제께서는 구천상제이시며 미륵존불로서 원시반본에 따라 강씨성의 개혁장으로 강세하셨으며 세상에 미륵불에 담긴 양산(兩山)의 이치 아래 종통과 도통줄이 전해지게 되었고 아울러 상제께서는 천지공사를 통해 혈통줄을 세우시고 도통군자를 내어 진법을 현실화 시킨 것으로 요약된다. 이상을 도표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강성(姜姓) 관련 주요내용 요약**

	姜姓관련 내용	典經 구절요약	비 고	관련장
1	彌勒佛	金佛能言 六丈金佛 化爲全女 <sup>84)</sup>	兩山道 宗統	2장
2	開闢長	開闢시대 原始返本이 되고 姜姓이 原始姓 <sup>85)</sup>	姜一淳 西神司命	3장
3	原始返本 <sup>86)</sup>	君師一體 <sup>87)</sup>	道通줄 道通君子	4장
		血統줄 正立 <sup>88)</sup>	祖上과 子孫의 有機性 道通 冥府是正	5장

83) 고남식, 앞의 글, p.22.

84) 예시 14절.

85) 행록 4장 17절.

86) 이 내용은 개혁장과 관련 강씨성으로 강세하신 것이 원시반본에 따른 것에 기인해서 원시반본에 주목 관련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이는 자료상 군사일체, 혈통줄 정립의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진다)

## VI. 결어

이 글은 상제의 신격위 가운데 강성(姜聖)은 상제께서 강씨성으로 강세하신 것과 관련된다는 면에 기인하여 상제의 인간계에서의 강씨성과 관련된 미륵불과 개벽장 및 원시반본 관련 구절을 중심으로 강성(姜聖)의 의미를 살펴 본 것이다.

상제께서 강씨성(姜氏姓)으로 강세하심은 신격위에 강성(姜聖)이라는 용어에 나타나 있다. 나아가 상제의 성씨(姓氏)인 강성(姜姓)은 미륵불 및 개벽장 그리고 원시반본 관련 구절과 관계가 있다. 미륵불은 금불이 화하여 전녀(全女)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관계가 되고, 개벽장은 강성(姜姓)이 원시성으로 개벽시대 개벽을 주재한다는 것이고 강씨성은 원시반본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원시반본 관련 내용인 혈통줄의 정립과 정교일치라는 부분이 강성(姜姓)과 연관된다. 또 강성으로 미륵불은 양산도의 이치로 종통, 도통줄과 연계되고, 강성으로 개벽장은 서신으로 사명(司命)하여 후천선경을 만드는 일을 주재한다.

원시반본의 원리에 따라 강씨로 강세한 상제께서 밝히신 성웅(聖雄)의 겸비, 정교(政敎)의 일치를 다시 구현해나가는 존재의 재탄생은 원시반본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진법(眞法)하의 질서로 구원의 길을 찾게 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인세에서 강씨성으로 상제께서 하실 종교적 행적의 중요한 일단(一端)이 된다. 이러한 진법을 따라 실로 정교(政敎)일치를 구축해 나갈 존재는 상제께서 천명하신 도통군자(道通君子)라는 전대 미증유적 존재의 출현과 그들의 역할에서 구원의 발전적 지향과 구현(具顯)을 찾게 되는 것이다. 미륵불의 양산(兩山)의 이치 아래 도통줄의 전수(傳授)하에 도통군자가 출현하여 도를 창성시켜

87) 교법 3장 26절.

88) 교법 3장 42절.

나가는데 이는 정교(政敎)일치, 성웅(聖雄)겸비, 진법(眞法)출현이라는 일을 실현(實現)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원시반본에 의거 강씨성으로 강제하신 상제의 권능(權能)을 따른 것이다.

또 혈통줄이 바로 잡힌다는 것은 조상(祖上)과 자손(子孫)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이고 이는 원시반본에 따라 강성(姜姓)으로 강제하신 상제의 성적(聖蹟)과 일련의 상관성을 갖는 내용이 된다. 혈통줄과 관련해서 보면 조상과 자손의 일반적 관계, 조상과 자손의 도통에서의 관계, 명부 관련 조상과 자손의 관계라는 세 가지 면에서 조상과 자손간의 긴밀한 관계가 나타난다. 자손은 조상에게 있어서는 헤아릴 수 없는 노력으로 존재하는 소중함이 있고, 이에 대해 자손은 자신의 내력을 알고 조상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길을 가야한다는 상생적(相生的) 관계가 있음을 천륜의 질서 하에서 주지해야 한다는 지상명령이 담겨 있다. 도통이 조상의 공덕과 연관되는데 이는 이제 인존(人尊) 시대를 맞아 인간의 도통이 신계(神界) 조상의 과거 공덕과 일련의 유기적 관계성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명부(冥府)와 관련해서 조상과 자손의 관계는 명부가 조상인 신(神)과 관련된 천도(天道)와 자손과 연관된 인도(人道)의 두 가지 문제에 총체적으로 관련된다는 면에서 명부 공사는 혈통줄을 바로 잡는 것과 일련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계(神界)의 한 부서(府署)라 하는 명부의 어지러움이 타계(他界)에 까지 영향을 주며 모든 세상의 문제를 야기 시킨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계와 인계, 조상 선령신과 자손이 유기적으로 긴밀한 관계 하에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긴밀한 조상과 선령신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 상제께서는 강씨성으로 강제하시어 천지공사를 체결하셨다.

『전경』 자료에 근거할 때 상제께서는 구천상제이시며 미륵존불로서 원시반본에 따라 개벽장으로서 강씨로 인간 세상에 강제하셨으며, 세상에 미륵불에 담긴 양산(兩山)의 이치 아래 중통과 도통줄이 전해지게 되었다. 아울러 상제께서는 천지공사를 통해 혈통줄을 세우시고 도통군자를 내어 진법을 현실화 시키셨다.

##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2012.
-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1984.
-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1969.
- 『삼국유사』, 최남선 편, 서울: 서문문화사, 1993.
- 『사략언해』, 서울: 명문당, 1999.
- 고남식, 「대순사상에 나타난 동학의 위상과 증산의 참동학 전개」, 『대순사상논총』 16, 2003.
- , 「증산의 도가적 경향과 무극도의 도교적 요소」, 『대순사상논총』 17, 2004.
- 김 탁, 「강증산의 원시반본사상」, 『한국종교』, 서울: 도서출판 우석, 1993.
- 김형효, 「원시반본과 해원사상에대한 철학적 고찰」, 『증산사상연구』 5, 1979.
- 김홍철, 「한국 신종교에 나타난 도교사상」, 『도교사상의 한국적 전개』,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 노길명, 「신과 인간의 원한을 말소한다」, 『한국사상의 심층』, 서울: 도서출판 우석, 1994.
- 배영기, 「원형사관에서 본 원시반본사상」, 『고조선단군학』 4, 2001.
- 이강오, 「사상으로서의 신흥종교 계보」, 『한국사상의 심층』, 서울: 도서출판 우석, 1994.
- 장재진, 『근대동아시아의 종교다원주의와 유토피아』, 부산: 산지니, 2011.

▪Abstract▪

## A Study on the Meanings of Daesoonjinrihoe Gangseong Sangje's Divinity

Ko Nam-sik

Daejin University

This paper is searching the meaning of Gangseong(姜聖) which came from Gucheon Sangje(九天上帝, the Lord and Creator of the Great Origin of the Ninth Heaven) incarnated in the Gang(姜) family.

To study the meaning of Gangseong(姜聖), this paper concentrate on Maitreya(彌勒尊佛) and the sentence about Wonsibanbon(原始返本) Sangje's incarnation in the Gang's family appeared on term Gangseong in the middle of divinity terms(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 Furthermore, Sangje's surname Gangseong(姜姓) has relation with Maitreya and the sentence about Wonsibanbon.

What Maitreya has relation with Gangseong(姜聖) is the legendary poem that Maitreya Statue became complete woman(六丈金佛 化爲全女) and what Wonsibanbon has relation with Gangseong is the fact that family name Gang is primary surname all over the world's human beings. Wonsibanbon comprises correction of family lineage and theocracy(政教一致) which came from tracing and reviving the beginning.

As a primary family name, Sangje's incarnation family name Gang plays a leading edge role of religious activity of Sangje because primary family name Gang represents the one and only Truth(眞法) or the principle of Wensibanbon which means the union[unity] of religion and politics(政教一致), and combining saintliness and heroism(聖雄兼備). According to the one and only Truth(眞法) like this, the first emergence and role of the completely "DoTongKunJa"(道通君子, the perfection of man with Dotong) who Sang-Je declared will build the union[unity] of religion and politics shows realization of advance-oriented salvation.

Under the principle of Yangsan(兩山, twin mountain, 甌山, 鼎山, the three-story Maitreya Statue of Geumsan Temple) which implies emergence of the completely "DoTongKunJa"(道通君子) who will accomplish the union[unity] of religion and politics(政教一致), combining saintliness and heroism(聖雄兼備) and advent of the one and only Truth(眞法出現).

This could be possible by the almighty of Sangje who incarnated in Gang's family nam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Wensibanbon from the text Jeonkyung(典經) as shown. Adjusting family lineage(血統) means to straighten out the relation between ancestors and descendants, and which has close relation with the activity after Sangje's incarnation in Gang's family nam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Wensibanbon. As far as family lineage was concerned, there are three aspects of close relation between ancestors and descendants. First, general connection between ancestors and descendants, Second Dotong(道通)-related connection, Third after-death entrance(冥府)-related connection.

Descendants should know a family history from moral laws

of family relationships(天倫) by the Compatibility principle. As for second Dotong-related connection between ancestors and descendants, the fact descendants' Dotong can be accomplished by the act of ancestors' charity shows human beings world(人間界) where descendants live has close organic relation with divine world(神明界) where ancestors live.

As for third after-death entrance-related connection between ancestors and descendants, after-death entrance are totally related with both Heavenly order(天道) of ancestors and Humane-order(人道) of descendants.

At this point, we can see the relation between ancestors and descendants are very close and organic.

As shown from the text Jeonkyung, Sangje as Gucheon Sangje(九天上帝, the Lord and Creator of the Great Origin of the Ninth Heaven) and Maitreya(彌勒尊佛) has descended to the earth adopting Gang's family name according to principle Wonsibanbon. By Sangje's incarnation in Gang's family name, the legitimacy of the religion and the perfection of Do could be succeeded under the law of Yangsan(兩山). Furthermore, Sangje realize the one and only Truth by Adjusting family lineage and producing the completely "true man" through Cheonji Gongsu.

**Key words** : Gucheon Sangje, Gangseong, Maitreya, Yangsan,  
Wonsibanbon, combining saintliness and heroism,  
DoTongKunJa.

◎ 투 고 일 : 2013년 8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3년 11월 4일~5일

◎ 계 재 확 정 일 : 2014년 3월 9일